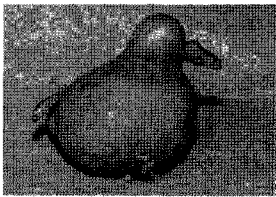


[영국]

“오리 인형 못지 않네?” 英, 이색 모양 감자 등장

출처 : 스포츠서울닷컴



오리 모양을 한 이색 감자 사진이 공개됐다. 영국의 일간지 ‘메트로’는 지난 20일(한국시간) “영국 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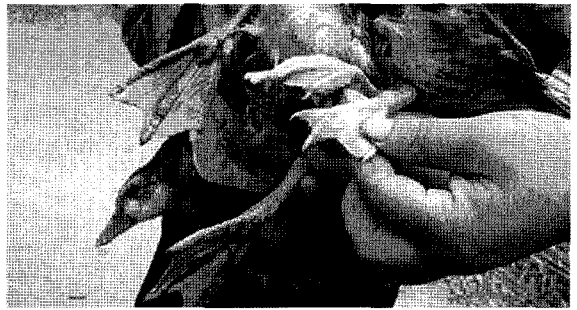
던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장바구니에서 독특한 모양의 감자를 발견했다”며 “이는 바로 오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감자는 완벽한 오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뾰족하게 나온 부리부터 오리 특유의 통통한 몸매까지 그대로 닮은 모습이었다. 꼬리 형태의 싹도 있었고 다리도 달린 듯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익살스런 모양의 감자는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풀어놓다가 발견됐다. 린다 켈리는 영국 워블던의 한 마트에서 감자를 사온 후 부엌에서 물건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 감자를 발견한 것. 켈리는 “사온 감자를 하나씩 꺼내어 보다가 유독 감자 하나가 이상한 것 같아서 유심히 봤다”며 “자세히 보자 이는 꼭 오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식구들을 모두 불러 이 귀여운 감자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 후 켈리는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일요일 저녁으로 먹기엔 감자의 모양이 너무 독특했던 것. 켈리는 “원래 저녁 찬거리였지만 오리 모양의 감자를 다른 이들도 함께 보길 바래 언론사에 감자를 맡겼다”고 밝혔다.

[중국]

돌연변이 오리, 다리는 3개인데 발은 4개! 주인 “10년 오리농사 중 이런 오리는 처음!”

출처 : 아시아 투데이



다리 3개, 발 4개 달린 돌연변이 오리가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매체 오렌지뉴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난닝 지역의 농장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오리를 소개했다. 오리를 처음 발견한 농장주 양평요우는 “걸음걸이가 편치 않은 오리가 있었다”며 “오리 한 마리가 자꾸 넘어지고 비틀거리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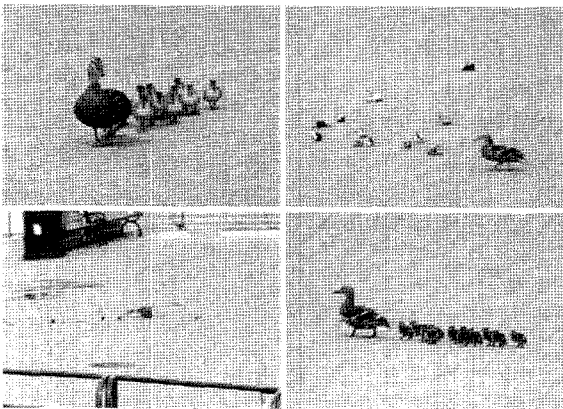
그는 “오리 농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런 오리는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 오리는 한쪽 발이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리가 하나 더 있는 오리가 태어나 성장까지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유전자적으로 검사를 해 볼 가치가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캐나다]

강풍에 날아가는 새끼오리들 인터넷 '웃음'

출처 : 디시뉴스



강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오리 가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네티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달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캐나다 토론토 인근 우드빈 경마장에서 길을 걷던 엄마 오리와 뒤를 따르는 새끼 오리들이 강한 바람에 데굴데굴 구르는 광경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어미 뒤를 따르던 10여 마리의 새끼 오리들은 갑자기 옆에서 강풍이 불자 작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날아갔다. 깜짝 놀란 어미가 새끼들을 모았고, 새끼들 역시 어미를 중심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러나 오리가족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곧바로 더 큰 바람이 불어와 새끼들은 물론 어미까지 한참 먼 거리까지 날아갔기 때문이다.

데굴데굴 구르던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는 바람이 그치자 곧바로 대열을 가다듬었다.

엄마 오리는 거센 바람에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걸 깨달았는지 바람을 등에 지고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새끼 오리들은 어미의 뒤를 줄 맞춰 걸어갔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재밌고 사랑스러운 영상"이라며 탄성을 질렀다.

영상 아래에는

"웃음을 멈출수가 없다. 새끼 오리들이 날아가는 게 정말 귀엽다"

"바람에 굴러가는 새끼 오리가 안타깝지만, 재밌는 건 어쩔 수 없다"

"강하게 자라거라"

"귀여우면서도 불쌍해"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74만건에 육박하는 인기를 모으며 인터넷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